

빨라지는 정계개편 시계 지역 국회의원 '이합집산'

무소속 손금주(나주·화순)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정계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무소속 이영주 의원(여수·갑)과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대안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무소속 김경진(북구갑) 의원도 최근 '무소속 당선 후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히는 등 국회의원들의 개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17일 대안신당(가칭)이 국회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연 뒤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 신당기획단도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3차 대안신당 창당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광주·전남 총선판을 뒤흔들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지역 정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자격을 사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열어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 1월 입당 신청 불허 결정이 내려진 지 10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때 나주·화순 지역구에서는 나주시장·국회의원을 역임한 신정호 민주당 지역위원장, 얼마전 총선 출마의사를 밝힌 김병원 농협중앙회

무소속 손금주 의원 민주당 입당
이용주·정인화 의원 "대안신당 불참"
김경진 의원 "무소속 출마 후 민주당 입당"
대안신당, 어제 창당발기인대회
바른미래 '변혁' 신당추진기획단 회의

장 그리고 현역인 손금주 의원의 정면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호남 무소속' 인 이용주·정인화·김경진·이정현 의원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안신당에서 받을 뻔이던 이용주 의원은 "대안신당 창당만으로 활로를 찾기 어렵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며, 정 의원은 "개혁성향 야권이 제3차 대안에서 빅 텍스트를 치고, 총선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며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손 의원의 민주당 입당이 향후 이용주·정인화 의원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무소속 영입 폭이 커지

고, 제3차 대안신당과의 연대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김경진 의원은 '선 무소속 출마, 승리 후 입당' 전략을 선택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민주당 탈당 후 대안신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지역 유일한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출신이었던 무소속 이정현(순천) 의원은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헌신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며 자유한국당 입당 거부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대안신당과 변혁도 빠르게 정계개편에 합류하고 있다. 국회에서 17일 창당발기인대회를 한 대안신당에는 총 1608명이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고, 유성엽 위원장과 천정배·박지원·장병완·윤영일·장정숙·김중화·최경환 의원 등 현역 8명이 포함됐다. 대안신당은 다음 달까지 시도당위원회와 중앙당 창당 등 모든 창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혁도 이날 신당 추진기획단 첫 회의를 열어 '공정'과 '정의'를 신당이 추구할 핵심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셰프 요리대회... 내 요리 평가는? 1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광주 셰프 요리대회' 육류부문 참가자들이 세계 유명 셰프들의 품평을 듣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檢, 영장 재청구할까 불구속 수사할까

광주 민간공원 특례의혹 공정·신속 수사로 진상규명 의지
검찰 "감사권 등 직권남용" ... 광주시 "합법적인 행정 행위"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운영령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직권남용 등)이 지난 15일 광주지법에서 모두 기각된 이후 관심은 온통 검찰의 추후 행보로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검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다 재판에 넘길 것인지 여부가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 관계자는 17일 "(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후 기소에 대해) 수사 관련 사항은 언급이 곤란하다. 양해해 달라"고 광주일보에 밝혔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고위 관계자 주재 아래 수사팀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수사 후 기소'라는 2가지 선택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이르면 주중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 발부와 관계없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잇단 영장청구 자체 만으로 의혹 투성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진상 규명 의지를 보였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4월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 후 진척이 없던 수사 초기와 달리, 광주지검 수뇌부 인사 후 광

주시청, 광주도시공사, 관련 공직자 자택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과 관련자 출소환, 잇단 구속 영장 청구에서 보듯 거침 없는 수사를 이어갔다는 점에서도.

하지만 검찰 앞에는 추후 수사도 엄중·신속 기조 아래 진행되고, 과정이 아닌 수사 결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다. 검찰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또한 정 부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만으로 관련 의혹과 혐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공원 해제 위기에 놓인 공원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로 충당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광주시 특정감사로 우선협상자가 된 바뀐 중앙공원 1·2지구 사업에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사업 제안서 평가결과표 유출→업체 이의제기→특정감사→평가오류 발견 및 정정 방침→제안심사위원회 수용 거부 및 파행→정 부시장 참석, 제안심사위 회의를 방침 관철

→우선협상자 변경(최종 발표)까지 일련의 행정 행위가 정 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공모 아래 '짜인 각본' 대로 진행됐다는 시각이다. 특정 감사 착수 자체는 물론 평가 오류를 바로잡아 선정된 업체를 바꾼 행위 일부에 직권이 남용됐다는 것이다.

반면 정 부시장 등은 이용섭 광주시장 승인 아래 평가 오류를 바로잡고, 추후 불거질 지 모를 탈락업체 소송제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정상적인 적극 행정 행위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광주시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 표명은 삼가면서 공원일몰제 시행(내년 7월 1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때 마칠 것이라며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광주시는 이르면 이달 중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건설사와 본격적인 협상 체결을 마무리하고, 3개월여 여유를 두고 내년 3월까지 '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단계까지 사업을 전격시킴을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임종석, 총선 불출마 선언

"제도권 정치 떠나 통일운동에 매진"

임종석(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내년 총선 출마를 접고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 제헌 꿈이자 소망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어 "2000년 만 34세의 나이로 16대 국회의원이 됐고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그중에서도 대선 캠페인부터 비서실장까지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한 2년 남짓한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5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다. 잘한 결정인지 걱정도 된다"면서도 "하지만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며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뛰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정치권에선 사실상의 정계는 퇴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호남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임 전 실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일정 정도 휴식을 갖고 통일부 장관 등으로 입각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지 않느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람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